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⑥

4. 진심의 신묘한 작용(眞心妙用)

或曰 妙體已知 何名妙用耶
혹왈 묘체이지 하명묘용야
曰古人云 風動心搖樹
曰古人云 風動心搖樹
알고인운 풍동심요수
靈生性起塵 若明今日事
운생성기진 약명일사
味却本來人 乃妙體起用也
매각본래인 내묘체기용야
眞心妙體 本來不動 安靜眞常
眞心妙體 本來부동 安靜眞常
眞常體上 妙用現前
眞常體上 妙用現前
진상체상 묘용현전
不防隨流得妙 故祖師頌云
불방수류득묘 고조사승운
心隨萬境轉 轉處實能幽
심수만경전 전처실능유
隨流認得性 無惑亦無憂
수류인득성 무혹역무우

喫飯時 只作喫飯會 一切事業
각반시 지작각반회 일체사업
但隨相轉 所以在日用而不覺
단수상전 소이재일용이불각
在目前而不知 若是識性底人
재목전이부지 약시식성저인
動用施爲 不覺味却
동용시위 부중매각

그러므로 날마다 행동하고, 사용하고, 배우고, 영위하고, 또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놀리고, 또 좌우를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 진심의 묘한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부들은 미혹하여 옷을 입을 때에는 단지 옷 입을 것만을 알고, 밥을 먹을 때에는 다만 밥 먹는 것만을 아는 등 모든 일에 상(相)의 움직임을 따를 뿐이다. 이런 때문에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마음의 본성을 철저히 깨달았다면, 행동하고, 사용하고, 배울

물었다. "신묘한 본체에 대해서는 이미 알았지만 신묘한 작용이란 무엇인가?" 대답했다. "옛사람의 시에 '바람이

"마음은 경계따라 굴러가지만 신묘한 본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니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구름이 일어나 성품에 티끌 일어나네/만약 오늘의 일을 밝히면/본래의 사람을 모르게 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신묘한 본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말한 것이다.

고, 영위하는 일에 우매하지는 않은 것이다.

故祖師云 在胎名神 處世名人
고조사운 재태명신 처세명인
在眼觀照 在耳聽聞 在鼻嗅香
재안관조 재이청문 재비후향
재구담론 재수집착 재족은망
편現俱該法界 收攝在一微塵
편현구해법계 수섭재일미진
知之者 爲是佛性 不識者 喚作精魂
지지자 위시불성 불식자 환작정혼

진심의 신묘한 본체는 본래 움직이지 않아 평안하고 고요하며, 진실하고 한결같다. 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본체에서 신묘한 작용이 나타나 흐름을 따라 신묘함을 얻는데에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사의 계승에서도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가지만 굴러가는 곳마다 실로 신비롭다. 흐름을 따라서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 하였다.

故一切時中 動用施爲 東行西往
고일체시중 동용시위 동행서왕
喫飯着衣 拈匙弄箸
각반착의 염시농저
左顧右盼 皆是眞心妙用現前
좌顧右盼 皆是眞心妙用現前
좌고우반 개시진심묘용현전
凡夫迷倒 於着衣時 只作着衣會
범부미도 여착의시 지작착의회

그러므로 조사는 이렇게 말했다. '태(胎) 안에 있을 때는 신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으면 보게 되고, 귀에 있으면 듣게 되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게 되고, 입에 있으면 달콤을 하게 되고, 손에서는 물건을 잡고, 발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두루 널리 나타날 때는 법계를 모두 감싸며, 거두어 들이면 한 티끌 속에 있다. 이 이치를 아는 자는 그것이 곧 불성이 되고, 모르는 자는 정혼이라 부른다' 하였다. 김원각(시인)

금암스님(前 법륜종 종정)

요즈음 부쩍 세상사람들조차 불교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불자들 사이에서는 바람직한 운동을 두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무소유가 수행자의 근본이라, 사실 불교재산은 세속적 재산과는 달리 선대 스님들로부터 지켜져 내려온 수행공간인 도량과 성보 문화재 등으로 삼보정재입니다. 그 자체로 귀의처가 되고 물질로만 견줄 수 없는 진실로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70년 가까이 출가 수행자로 살면서 전통사찰도 그렇고 사찰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삼보정재라는 근본을 망각하고 절을 망가뜨리는 일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실로 뼈아프게 느끼는 일입니다. 특히 종단에 등록도 되지 않은 사찰사람들은 더욱 심하고 종단등록된 절들도 세간법으로 이리 거여 맞추고 저리 거여 맞추다 보면 어느새 불교재산이 아닌 것으로 돌변해 삼보정재가 유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 재산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주 대중이 알아야 하지 우물쭈물 봉창에 넣는 일은 안됩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아픈 일입니다. 나는 부처님 정재 늘리는 일은 못해도 없애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결의를 수도 없이 한 사람입니다. 시중물로 살면서 돈을 깨치는 일도 내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정재유실 만큼은 도저히 관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님네들이 내 생각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10년전 그런 뜻들이 모여져 만든 것이 한국불교 법륜종입니다. 우선 법륜종도들만이라도 철저히 재단법인을 만들어 삼보정재를 잘 지키자는 발원을 담았어요. 정재를 온전히 보전할 방안들을 찾는데 노력해주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종단들마다 크든 작든 재단법인을 만들어 재산을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릴 뿐입니다.

는데, 엄연한 진심입니다. 또 사람은 지조있게 살아야 절재처럼 물러 떠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는 재단법인체로 종단을 만드는 데 일조한 이후에는 그저 단속이나 잘하자고 목적하며 살아왔습니다. 대중적이나 사회적인 일에 앞서지 않고 묵묵히 이 자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뿐입니다.

살날이 다가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소망하는 것을 잘 헤아려 보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나와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스님이나 속인이나 원(願)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불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부합되거든요. 그러니 새

- 1915년 대전 생
30년 공주 동학사로 출가
36년 동학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 졸업
38년 원주 위봉사 연합불교전
문강원 대교과 수료
42년 영월 보덕사 포교사
46~47년 공주 동학사 주지
70년 대전 보광사 창건, 현재 주석
83~85년 태고종 총남교구
총무원장
88~95년 법륜종 창종, 초대
종정 취임



"願은 바로 희망입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일심발원하면 이루어집니다"

해를 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은 불자의 자세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참된 나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지닌 불성을 관찰하고 드러나도록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자꾸자꾸 녹여내십시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통해서도 최소한으로 보고 마음의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기실 나름대로 잘해보자고 애썼다면 예쁜 일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부처님 뜻에 못미치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것은 종단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의의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원효스님의 통불교 정신이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모두가 일불제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에 종단이 우후죽순 헤어나기조차 어렵게 많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88년에 신생종단을 만든 장본인의 나이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

물론 남까지도 해칩니다. 욕심을 달아내고 또 달아내면 욕심이 자리잡았던 그 자리에 원래 우리들이 지니고 있었던 맑은 본성 부처가 고개를 숙 내밀수 있습니다.

우스개소리 할까요.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귀담아 들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돈에 대한 욕심을 없애면 돈이 생깁니다. 원리가 그래요.

돈을 벌면서도 마음가짐을 '아이구 좀 아라' 하면 안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그속에 길이 있거든요. 국법을 팔면 서도 '이 음식으로 내 이웃이 맛있게 잘 먹으니 좋다' 하는 마음이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재료를 덜 쓰고 해서 원료를 아끼겠다'고 하는 식이면 점차 손님이 줄다. 결국 그런 국법집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좀더 나은 것이 벌릴 수가 없지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직접 대고 말하면 바라밀이 그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을 실천해 보세요.

사람의 눈이 구조적으로 밖으로 비쳐

지는 형상을 보게되어 있는지라 자기 자신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망막에 비쳐지는 것보다 훨씬 고감도이고 고성능인 마음의 눈은 결국 자신의 부족하고 모순된 부분들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가장 좋은 수행법인 참회를 하게됩니다. 참회로 닦여진 그 심성이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참회하는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은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富)와 귀(貴),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자신은

禪房建立 募緣文

선방의 기본인 원융산림이 되어야 수도에 전념할 수 있다고 고인들은 말씀해 왔었습니다.

저는 재방에서 수도를 전념해왔고, 부처님의 원융산림에의 실천으로 상좌를 두지 않고 오직 수행인과 같이 고행 정진 할 것입니다. 초현대식 연면적 600평의 선방으로 건립중인데 현재 60%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때라서, 불사건축에 무척 어렵습니다. 부담없는 정성으로 동참하시는 불자님들은 성불의 성연이 되오니 많은 인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크스님께서 소장하신 부처님사리를 간절히 기증 바랍니다.

국민은행: 036-24-0135-189
김선규(오른) 보덕사 주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824-1호 T.914-4235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보덕사
주지 悟本(김선규)합장

주식회사 반야종합건설에서 시공중.
보덕선원 불사와 주요공사 실적을 보시면 신뢰가
느껴집니다. 부담없이 건축계획이 있으시면, 정성
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 완 진 합장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37-20세진 B/D 4층)
전화 921-0175~7 팩스 921-017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세요?
현대 결혼 연구원
이영숙 원장입니다.

은누리에 두루하신 부처님!
1999년 21세기를 향해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성원해주신 은혜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영동포에서
98년 12월 27일 종로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인사 드립니다.

미래 지향적인,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영숙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영동공공민원봉사실) 502호
대표전화: (02)2275-5592~3
핸드폰: 018-277-5592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크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크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산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 안내

- 합본 제4집: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 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 x 55cm)
○ 구입 가격: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8.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